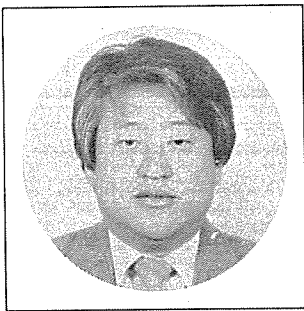


“노벨賞과
統一의
길은..”



최 동 식
〈고려대학교 교수·화학〉

새마을운동은 새과학운동으로,
일해재단은 과학연구재단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물론 가까운 정도나 그 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가족·친척·학교·친구·이웃·직장·위아래 및 동료 말고도 직업상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따져보자. 과연 그들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대부분의 경우가 우선 제 몸, 즉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다음으로 어차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사람만을 편애함으로써 결국 그 사랑마저도 자기자신에게 돌아오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걸 곧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라는 생각을 『나』보다 많이 하고, 그 『우리』의 범위가 가족, 가장, 국가 등으로 커져서 이웃·인류·자연·우주에까지 넓어지는 예를 가끔 본다.

그들은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특성이 강하고 직업상 진·선·미 추구에 평생을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과학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분쟁과 시기 질투가 월등히 적은 편이다. 옳고 그름이 쉽게 가려지는 때문이기도 하고 전공분야가 너무 세분화되고 광역화되어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은 늘고 있으나 분쟁은 줄어들고 있다.

예전 영국의 맥스웰이 미국의 김스나 화란의 환데발스 등을 인정하여 그들의 업적을 세상에 알려 주었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후학을 사랑하는 물리학계의 큰 인물도 계시다고 듣고 있다.

아무리 분야가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깊어진다

새세대육영회는 과학영재육영회로, 심장재단은 의학계의 뜻대로

활용되는 변화가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해도 어떤 수준에 이른 과학자들이 서로의 일을 가능하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훌륭한 과학자로서의 성패가 좌우된다 하겠다.

같은 직장, 비슷한 분야에서 종종 빚어졌던 경쟁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은 여건이 나아지면서 점차 선의의 경쟁쪽으로 면모를 바꾸어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까지 노리는게 각종 연구비를 공동으로 신청해야만 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과학계의 이러한 풍토를 산업계나 사회 전반에까지 넓혀갈 때가 된듯 싶다.

예를 들어 보자. 기술개발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모험기업을 돕고자 하는 제도적 금융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참여쪽으로 돌려 금고나 단자회사같은 사채성 금융보다는 공익성 금융의 이익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민간주도 차원으로 과학화운동을 벌리자는 움직임이 있을 때 누차 이야기 했다가 5공화국 시절 과기처회의록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다.

『새마을운동본부를 접수하여 새과학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축구선수는 불을 차게 도와 줍시다.』가 바로 그것이다.

일해재단을 비롯한 새세대육영회·심장재단 등 막대한 재원과 조직을 어느 한 정파나 소수 이익집단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사회·국가·인류를 위한 과학·산업·문화주체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때야말로 정치쪽에도 경륜이 있으신 과학계 인사들의 활약에 기대를 해 볼 때다.

실례를 무릅쓰고 여기서 거명을 하기로 한다. 박공식·이태섭·김성진·최형섭씨등 역대 과기처장관과 조완규·민관식씨등 역대 과총회장들

이 나서서 이른바 원로자문회의 여러분께 협조를 구해 최상업·이상희·조경목씨등 전·현직 직능대표직의원들이 큰소리로 외칠 때가 된 것이다.

정치성·당파성·찰라성·분열성을 줄이면서 과학성·일체성·영구성·화합성을 살리는 활동을 활발히 벌려보자. 이러한 활동이 기폭제가 되어 우리는 우리민족의 염원 두 가지를 쉽게 해결하게 될 것이다.

즉, 『노벨상』과 『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 『노벨상』은 수년내에 현실로 될 것이며 『통일』전에 서너번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위의 단언은 전제를 두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새과학운동으로, 일해(새종)재단은 과학위주 연구재단으로, 새세대육영회는 과학영재육영회로, 심장재단은 의학계의 뜻대로 활용되는 변화가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함이 바로 그 선결조건인 것이다.

이야말로 언론통폐합을 언론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소신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틀림없는 이야기이다.

우리 스스로가 『과학』을 알아주지 않으면 『과학』은 우리의 벗이 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옆의 『과학자』를 이해하고 옳게 평가해 주지 않고서는 협동연구나 과학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 과학계는 통일 전에 노벨상을 따기 위해 통일을 미루는 우스꽝스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언론의 일각에서 들먹여지는 의견을 종합한 이 짧은 글이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을 확신하며, 과학한국 만세.